

[에센테크 제24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보고서]

■ 일반사항

구분	정기주주총회
일시	2017. 03. 24 (금) 오전 9시
장소	전라북도 군산시 자유로482 군산자유무역지역 관리원 3층 소회의실

■ 상정 의안

No.	의안	
제1호	제24기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1. 제3조 본점 소재지 변경
제3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	3-1. 사외이사 이종대 선임의 건 (신규선임)
제4호	감사 선임의 건	4-1. 비상근감사 이원호 선임의 건 (신규선임)
제5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주목해야 할 의안 분석

[제4호 의안 비상근감사 이원호 선임의 건(신규선임)]

· 의안 내용

성명	생년월일	주된직업	약력
이원호	1961.01.14	-	기아자동차 (주)에센테크 이사

· 의안 분석

이사회가 추천한 신규 비상근감사 후보자 이원호는 그 약력과 최대주주 등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감사로서 독립성과 중립성 측면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됨.

이원호 후보자는 201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에센테크의 미등기임원으로 상근하며 재직하고 있었으며 분배기영업총괄 업무를 수행해 왔음. 뿐만 아니라 에센테크의 최대주주인 대창의 자회사 태우에서 영업관리이사를 맡은 경력이 있는 등 에센테크 및 에센테크를 지배하고 있는 대창의 여러 관계회사 등에서 재직한 이력이 있어 감사로 선임되기에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더불어 이원호 후보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데, 에센테크 및 에센테크의 최대주주인 대창을 실질적으로 지배

하고 있는 조시영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로 파악됨.

이원호 후보자의 경력 및 최대주주 등과의 밀접한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이원호 후보자가 감사로서 독립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하여 이사회를 견제하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에 다소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원호 비상근감사의 신규 선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권고함.

판사 출신의 변호사로서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나 임창훈 후보자는 한샘의 최대주주인 조창걸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이므로 감사로서 독립성과 중립성 측면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됨.

더군다나 한샘은 한샘의 주요 경영진이 지분 상당수를 보유하고 있는 한샘이팩스 등과 매년 밀접한 거래 관계를 맺고 있어 한샘 이사회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중립성은 더욱 중요함. 한샘은 관계회사인 한샘이팩스 지분 38%를 보유하고 있으며 잔여 지분의 대부분은 최양하(대표이사), 조은영(최대주주의 친인척), 강승수(부회장), 조창걸(최대주주) 등 한샘의 주요 경영진 및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음. 2016년 3분기까지 한샘은 한샘이팩스로부터 약 317억원 규모의 매입거래를 수행하였으며, 2015년에는 한샘이팩스 전체 매출 864억원 가운데 약 409억원을 한샘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시킴. 그 외 한샘은 기타의 특수관계법인인 한샘넥서스, 퍼니스템 등과도 매년 일정한 수준의 거래 관계를 지속하고 있음.

이와 같이 한샘의 최대주주 및 주요 경영진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과 한샘의 거래 관계가 매우 긴밀한 점을 고려했을 때, 한샘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임창훈 상근감사의 신규 선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권고함.